****

**파급 효과**

2015년은 로즈 브라이언트에게 있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일이 예상대로 정확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원래는 새로운 직장을 위한 많은 기회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되어 있었지요."라고 로즈는 말한다. 그녀가 대학을 마치지 못했고 새로운 직장에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녀는 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로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소매업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이 여정은 그녀가 이전에 다녔던 앨라배마주 투스칼루사의 스틸만 대학으로 돌아가 그녀의 예전 성적표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여행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개입 같았어요"라고 로즈는 설명한다. "성적표를 가지러 가기 위해 학교 옆을 지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알아 보시고는 내게 학교로 다시 오냐고 물으셨어요. 종이 쪽지에 뭔가를 적어서, 접은 후 나에게 주시고는, 입학 등록사무실에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 쪽지는 브라이언트가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여름 수업 두 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는 두 과목 모두 A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학위를 딸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자신감이 생겼지만,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첫 번째는 또 다른 기회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장학금이었다. 로즈는 고등학교 합창반 선생님인 조클린 리처드슨 여사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는 이제 유명한 스틸만 대학 합창단을 이끌고 있었고, 로즈에게 참가해 달라고 말해 왔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학비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합창단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2019년 로즈는 교육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녀는 현재 텍사스 주 달라스의 달라스 독립 학군에서 7학년 담당 영어 및 언어 학습 교사로 일하고 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은 스틸만과 같은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을 지원한다. 로즈는 그것이 그토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에 우리에게 헌금을 권한다.

스틸만의 지원 없이는 여기 오지 못했을 거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에요. 받은 지원 덕분에 목표를 완수할 수 있었고, 내 여동생을 포함한 최소 6명이 어떻게 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묻기 위해 나에게 찾아 왔지요."

로즈가 말하는 파급효과는 우리 각자가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할 때 시작되는데, 그 힘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관대하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소망과 기회의 축복을 주소서. 아멘.*